

광주시, 여성가족친화마을 16개 사업 추진

돌봄·성평등·경제·그린뉴딜 등 총 11개 선정 자치구별 광역형 연속사업 5곳과 함께 시행

광주시가 올해 여성가족친화마을 1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가족친화마을은 여성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단위의 돌봄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돌봄 ▲성평등 ▲경제 ▲대표성 등 기존분야와 '그린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선정해 시행한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분야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에 함께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돌봄분야에서는 '남구 주민회'가 추진하는 '함께 해요, 둔우리 공동육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도동마을 일대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 마을탐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서구 온마을-2021 온마을(溫)택트 프로젝트 ▲서구 화삼골 띠;앗-지역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화삼골 띠;앗 ▲북구 임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마을

E 돌봄 프로젝트-1 등 돌봄분야에서 총 4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분야에서는 3년 연속 선정된 '북구 신안동 자원봉사 캠프지기'가 '장화신은 고양이들의 금모래방천 마을살이 2탄'을 추진한다.

신안동 자원봉사캠프지기는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장화신은 고양이'라는 마을 브랜드를 활용한 수공예품 등 대표상품을 개발해 일지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강사로 나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서구 놀만치-지명마을에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등도 경제분야 사업으로 선정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광산구 첨단2동 첨단살롱어문손'이 '톡!톡! 마을공예와 함께하는 성평등이야기' 사업을 진행한다. 성평등 교육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책과 공방작업을 결합한 성평등 수공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동구 지산2동 새마을부녀회-지혜의 밤상을 담다'라는 사업도 같은 분야 사업으로 운영된다.

대표성 분야는 '북구 매곡동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매화골 오감충전소' 사업이 선정됐다. 마을의 상징인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부모 가족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그린뉴딜 분야 사업으로 선정된 '동구 비알스페이스'는 '여성가족친화마을-돌봄지원대'를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관련된 자원순환 교육, 정리수납 2급 자격증 취득반 운영, 소외계층 자원봉사 등을 진행한다. '서구 양3동 통장협의회'는 '꼭 재활용되어야 하는 페트'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마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2회 이상 마을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광역형 사업을 1개씩 선정했다.

이들 5개 사업은 2년의 사업 기간에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선정된 11개 특화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광역모델로 선정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96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첨단2제일 풍경채 모모가정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미인가 교육시설 입소 전 검사 의무화

정부 575곳 방역점검 완료

정부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EM국제학교처럼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98개소 중 74개소는 지난 1일까지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를 마쳤다.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입소일 전까지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전 IEM국제학교와 경기·광주 TCS국제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IEM국제학교에서는 13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광주를 비롯해 총 6개 시설에서 약 4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 동안 미인가교육시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니며 교육당국에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한해 관리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란 비판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 수가 전국에 약 300여개소로 추정했으나 이번 방역점검을 통해 575개소를 확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첫 예술중 내년 3월 광양에 개교

중마로 예술고 건물 활용

전남 지역 첫 예술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광양시 중마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문을 연다. 개교 목표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2·3학년 각 2학급, 총 6학급 규모다. 음악과 1과와 미술과 1과로 운영한다.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은 음악과 20명, 미술과 20명 등 총 40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우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건물을 공동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중학교 건물 신축도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학교 설립동의안 의회 제출 등 기본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에는 현재 사립학교 1곳을 포함, 3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다. 이중 하나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지난해 개교했다.

도 교육청은 한국창의예술고와 중학교가 지역 예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예술중학교도 내년 정식 개교한다. 위치는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개교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예술중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결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봄맞이 대청소 3일 광주 북구 오치2동 호남고속도로변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

전교조, 입법 청원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상한제의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의 법제화를 위해 입법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없애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센터 구축과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020년 교원 수급 현황에서 다수 시도에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소태동 위생매립장, 가족 테마파크로 조성

10년 전에 사용 만료된 광주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이 가족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광주 동구는 3일 소태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최종 복토 설계 및 사후활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공간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매립장 최종복토와 사후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구는 2018년 9월 위생매립장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사후 활용방안을 고민했다. 매립장 공간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캠핑

장 조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역민들이 공원과 어울려진 여가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야의 체육시설, 테마공원, 캠핑장을 갖춘 휴식 공간형 테마파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구는 우선적으로 위생매립장 최종복토가 완료된 후 단계별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오고 있다”면서 “용역결과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구를 대표하는 명품 여가시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